

“경제발전 정책 수립 민생안정 최선”



Interview 당선인에게 묻다-⑦정읍고창 유성엽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의 영입인사 중 하나인 하정열 국방안보연구원장을 정읍고창 지역구에 전략공천했다. 지역 내 인지도가 높은 이강수 전 고창군수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유성엽 당선인은 탄탄한 조직력으로 4·13 총선에서 이들을 물리쳤다.

당 원내대표에 도전... 배경은?

“이제 당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져 전북정치 복원에 대한 연장선·출발점”

지역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

“정읍지역은 연구개발 중심지로 키우고 고창은 갯벌 등 바탕 생태관광산업 육성”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출마한 유성엽 당선인이 3선 진입에 성공했다. 사실 정읍 고창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지역으로 정하면서 유력인사들이 끊임없이 거론됐었다. 특히 선거초반만 해도 정읍 지역은 그동안 연이은 3선 당선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유성엽 당선인으로선 불안한 출발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후보와 무소속 이강수 후보의 지지율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난 점과 이들의 불(不)연대가 유성엽 당선인에게 호재로 작용했다. 또한 안철수 의원의 지원 등 소위 ‘국민의당 바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탄탄한 조직력을 발휘하며 초반 불안감을 물리는데 성공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각종 TV토론회를 통해 특유의 강한 어투로 상대 후보들을 잇따라 압도하는 등 선거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승리 구도를 완성했다. 선거막판에는 이강수 후보가 TV토론회에서 “도지사와 차기 국회의원을 나눠 갖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약발도 먹히지 않으면서 유 당선인 승리로 막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정당이 아닌 후보 개인의 자질을 살피는 유권자들의 인식 변화도 이번 선거 승부의 빼놓을 수 없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 당선인은 선거내내 적절한 상대 전략에 대응하고 자신을 어필하는 등 단수가 높은 선거 전략을 펼쳤다는 평가다. 지역정가는 “패권정치 청산해야 한다”고 선거운동이전부터 내내 외쳐온 유 당선인에게 지역민들이 표를 몰아준 데는 그의 주장에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유 당선인의 행보도 관심이다. 그는 탈당 이전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위기

에 흔들릴 때마다 중진 의원 모임을 주선하며 소통과 화합을 도모해왔다. 이 때문에 선거 전부터 그가 차기 전대에 당권을 포함한 당내 요직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심심치 않게 제기됐었다. 이에 반응하듯 그는 지난 19일 “국민의당 원내대표에 도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출마 표를 던졌다. 소외됐던 전북정치를 복원할 것이라 유 당선인의 운신의 폭이 얼마나 넓어질 지 기대

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읍 고창 선거구에서 연이은 3선은 첫 사례다. 유권자들이 힘을 실어준 이유는? 아무래도 초선보다는 3선에게 일을 맡기면 지역과 나라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다. 이는 기대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민의당 바람이 영향을 끼친 것 같다. ▲20대 국회 개원하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우리나라는 경제난이 심각하다. 위기가. 큰 당면과제가 아닐수 없다. 민생안정을 챙겨 나갈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 MB나 박근혜 정권은 경제정책에서 실패했다. 경제성장률이 3%에 불과하고 세계 100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러한 실패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으면서 경제발전정책을 수립하는데 노력하겠다. ▲원내대표 출마 선언했다. 배경은? 이제는 국민의당 역할이 중요하게 됐다. 특

히 총선에서 전북정치 복원을 약속했다. 이번 원내대표 출마는 그 약속에 대한 연장선과 출발점으로 보면 된다. ▲지역정가에서 도당위원장에 대한 관심도 많다. 물론 도당위원장은 중요하다. 지금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 현재 당선인 7명과 원외 위원장 3명이 있다. 이들과 함께 상의해 결정할 일이다. ▲총선과정에서 도지사 비탕설이 불거졌었다. 도지사에 관심은 있나? 지난 3월 3일 출마선언하면서 2018년 도지사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 현재는 지역민과 국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재선임장에서 정읍 고창 현 상황을 진단한다? 어느 중소도시와 마찬가지로 인구나 지역경제가 취약하다. 하지만 정읍, 고창 두지역 모두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잠재력이라면? 먼저 정읍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등 3대 국책연구소가 있다. 또한 정읍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R&D(연구개발) 중심지로 키워 나가면 지역 경제 활성화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아울러 고창은 지리적으로 생태 자연이 잘 보존돼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갯벌, 운곡습지 등을 바탕으로 생태와 힐링 관광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에게 한마디? 어쨌든 전북 정치권 목소리를 회복해야만 한다. 이런 기대감으로 국민의당에게 힘을 실어줬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하겠다. /신광영 기자

“인가 NGO 활동 적극 지원대책 마련 절실”

도의회 최은희 의원, 5분발언서
최영일 의원 “복분자 판매책 필요”

전북도의회 최은희(더불어민주당 비례), 최영일(순창), 이성일(군산4) 도의원은 지난 22일 제331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인가지원’, ‘복분자 판매촉진 대책’, ‘어린이집 누리과정 해소’ 등을 주장했다. 최은희 의원은 “무형문화연구소의 인가 NGO 지위획득은 전북의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을 세계적으로 알릴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무형문화 유산 보호에 선도적인 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다”면서 “인가 NGO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일 의원은 “20대 국회가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면 누리과정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되었지만 그 시간 동안 도내 1,620개 어린이집과 1,800여명의 보육교사, 2만 2,000여명의 영유아가 고통스럽게 견뎌야 한다”며 “아이들이 단 1초라도 고통받는 시간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전북도의 긴급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영일 의원은 “전북은 복분자의 주산지다. 그런데 수확철을 앞둔 요즘 고창 622톤, 순창 210톤 등 쌓은 재고량에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생산을 장려한 지자체들이 유통과 가공분야에 소홀히 한 점도 원인이다”며 “6월 수확철까지 재고량 소진을 위해 특단의 판매 촉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광영 기자



한우 위탁사육 반대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는 지난 22일 오후 1시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전북도 한우협회 회원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안군청 광장에서 한우 위탁사육 반대를 위한 규탄대회를 가졌다. <관련기사 9면>

정동영 당선인, 항공대대 이전반대 의견 청취

국민의당 정동영 당선인(전주 병)은 지난 22일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반대 대책위원회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주시가 22일 시청브리핑을 통해 국방부의 항공대대 이전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밝히면서 지역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여 명의 주민과 비상대책위원들이 참석했다. 정 당선인은 “항공대대 이전사업 실시계획의 국방부 승인을 유보시키고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하는데, 벌써 승인되어 안타깝다”며, “이제 서울행정법원에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계획승인처분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도록 변호인당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김영배 도의장 장애인의 날 감사패

전북도의회 김영배 의장(익산2)은 지난 22일 익산 팔봉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6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평소 장애인단체의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기여하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등 권익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광영 기자



전북지역 더민주 낙선 후보자들의 앞으로의 다짐

“자성과 분발의 계기 삼아 더 열심히 뛰겠다”

대부분 지역에서 머물 못
김성주 의원 “기금운용본부 이전 문제 계속 주시할 것”

지난 4·13 총선에서 뼈 아픈 패배를 맛 봤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낙선자들이 고통스런 기억을 떨쳐내며 훗날을 기약하고 있다. 아권 텃밭인 전북에서 패했다는 충격과 전북 정치 핵심인 전주 지역을 내줬다는 자괴감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20대 총선에서 전북에서 현역 당선자는 불과 3명에 불과하다. 당선자와 달리 낙선자들은 선거를 아예 접을 수도 또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을 기약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도내 낙선자 상당수가 다시 신발 끈을 고쳐 매는 것으로 후일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낙선자

대부분은 지역에서 자리를 잡거나 상당 기간 머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전주병 김성주 의원은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와 접전 끝에 단 989표 차로 석패한 후 “변함없이 전북과 나라를 위한 일에 현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겠다”면서 “그리고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더 노력해서 다시 일어서겠다”고 재도약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핵심 공약사항이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이전에 대해서는 근심 섞인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가장 격정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더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라도 주시하며 전북이전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이상직 의원을 경선에서 따돌려 세간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전주병 최형재 후보는 그러나 111표라는 통탄의 표차로 전북 정치의 심장부를 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인에게 뺏겨 통탄의 선거로 기억된다. 그는 지역구 주요 도로에 “성원에 감사하다”는 짧은 낙선 사례와 함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민심을 봤다”는 자책감을 갖고 지역을 돌며 새로운 정치적 행보를 이어나갈 간접적인 뜻을 내비쳤다.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전북 정치 1번지로서의 책임감을 안았던 김운덕 의원은 총선 패배 직후 “전주 시민의 눈높이와 성년 민심에 미치지 못했던 책임이 크다”면서 “이번 선거를 자성과 분발의 계기로 삼아 더 열심히 뛰겠다”고 결연한 모습을 보였다. 김홍희 당선인에 마쳐 4선에 실패한 김춘진 의원 역시 지역 주민들을 만나 고마움을 표하며 훗날을 도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내가 부족했다. 하지만 제1야당의 도당위원장으로서는 지역에 머물며 정권교체를 위해 할 일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 제정 건의안 발의

전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지난 22일 제331회 임시회에서 가칭 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최의원은 최근 일본과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지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진과 같은 대형 자연재난은 예측하기도 어렵고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학교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이미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서도 내진 보강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사업은 국가재난대응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간 교육재정 차이와 노후화 정도를 감안해 특별법 제정으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고 필요시 학교재난 예방 기금 조성 등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전주시의회,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안 마련

전주시의회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를 만들었다. 전주시의회는 22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체 발의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전주시 청년들의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의 학습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특히 청년희망도시라는 슬로건을 청년 기본조례에 담아 정책위원회 구성 및 청년희망도시 활동 등 청년 스스로 정책 및 실행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체계를 다졌다. /김영재 기자